

## 3·1운동에 참여한 대구·경북 여성과 이후 활동

강 윤 정\*

- I. 머리말
- II. 3·1운동에 참여한 대구·경북 여성
- III. 3·1운동 이후의 활동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구·경북여성들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도시지역인 대구에서는 여학교 단위의 3·1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운동의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남편이나 一家 전체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자, 여성들도 함께 참여한 사례도 있다. 한편 양반가의 여성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김락과 남자현의 경우는 가족이 항일투쟁에 참여한 前史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대구출신의 기생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정칠성과 같은 인물도

\* 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sanman0115@anu.ac.kr.

\* 본고는 2019년 『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 연합학술대회-제5회 영호남의 대화 : 3.1운동 100주년 기념(2)-』에서 발표한 「3·1운동과 대구 경북여성」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히둔다.

있다.

3·1운동에 참여한 경험은 이후 항일투쟁과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에 참여한 남자현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항일투쟁과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한연순과 김정희 등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으며, 정칠성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하고 여성운동을 이어갔다. 이들의 무대는 출신 지역과 국내를 포함하여, 만주와 일본으로 그 공간이 확대되었다. 또한 이들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여성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3·1운동은 1920년대 이후 여성들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주제어

3·1운동, 대구·경북 여성, 신명여학교, 여성운동,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 I. 머리말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던 1919년 3·1운동에서 여성들은 큰 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은 여성들의 활약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상호연대·비밀조직 결성 등을 통해 3·1운동의 확산과 장기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생과 여성 농민·노동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성과 역할을 인식시킨 성과였다.<sup>1)</sup>

대구·경북에서도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있었다. 특히 대구 신명여학교의 만세운동은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을 대표할만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들 참가자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더러 있지만,<sup>2)</sup> 참여층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더 나아가 3·1운동 이후 이들의 행적을 조명하여, 실제로 3·1운동이 1920년대 여성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1차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대구·경북 여성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여성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삼았다. 즉 경북지역 만세운동 현장에 참가한 여성을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 활동한 대구·경북 출신들도 연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는 참가 여성들의 계층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1920년대 이후 활동 양상을 밝히

1)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 한울아카데미, 2009, 161쪽.

2) 『대구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김락·이소열·임봉선」,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연집』, 2019; 강윤정, 「일제강점기 대구·경북여성들의 민족운동-국내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독립정신 계승·발전 세니나』, 대구광역시·경상북도·대구경북연구원, 2019.

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실제로 192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사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를 조명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II. 3·1운동에 참여한 대구·경북 여성

지금까지 대구·경북 출신(이하 경북출신) 여성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여성은 <표 1>과 같다.<sup>3)</sup> 여기에 <표 2>의 신명여학교 학생 30여 명을 더하면 현재까지 45명 정도 확인된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만세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1919년 12월 31일자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여성 피체자가 16명이나 되었다.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sup>4)</sup>

3) 이하 본고에서는 경북 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은 경북에 포함된 행정 지명이다. 이에 본고에서 사용하는 경북지역은 현재의 대구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4) 경북지역 3·1운동의 군별 피체자 수, ( )는 여성 피체자 수

군별	대구	달성	군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영일	경주	영천	울진
인수	297(16)	33	4	190	392(1)	7	5	489(4)	39	30	18(1)	30
군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선산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총계
인수	97	33	133	135	51	11	19	23	43	34	20	2,133

\* 1919년 12월 31일 현재,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조사 참조

〈표 1〉 3·1운동에 참여한 대구·경북 여성<sup>5)</sup>

번호	성명	한자	생몰연대	본적/주소(공적조서)	훈격(포상연도)
1	임봉선	林鳳善	1897~1923	칠곡 인동 (현 구미)	애족장(90)
2	이선희	李善希	1896~1926	대구 중구 서성로	대통령표창(10)
3	이남숙	李南淑	1903~미상	대구 중구 계산동	대통령표창(19)
4	한연순	韓連順	1898~미상	대구 중구 남산동	대통령표창(19)
5	양태원	楊泰元	1904~미상	경주 내남면 덕천리	대통령표창(19)
6	김정희	金正希	1895~ ?	영천군 영천면 과전동	미포상
7	김금심	金今心	미상~미상	구미 해평면 산양리	미포상
8	이소열	李小烈	1898~1968	구미 해평면 산양리	대통령표창(18)
9	신분금	申分今	1886~미상	영덕 지품 원전	대통령표창(07)
10	윤악이	尹岳伊	1897~1962	영덕 지품 원전	대통령표창(07)
11	김학여	金學女	당시 46세	영덕군 창수면 창수	미포상
12	장분이	張粉伊	당시 38세	영덕군 창수면 창수	미포상
13	김 락	金 洛	1863~1929	안동 도산 토계	애족장(01)
14	남자현	南慈賢	1872~1933	영양 석보 지경	대통령장(62)
15	정칠성	丁七星	1897~1958	대구 출신/ 서울 거주	미포상

5) 「이만집 등 판결문」; 「한연순 판결문」; 「김정희 판결문」; 「윤악이 외 1인 판결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3·1운동사(하), 1976, 150·461~463쪽; 조선총독부 경북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쪽; 김진호, 「영덕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13~157쪽; 국가보훈처 공훈록;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독립운동 인물사』, 2019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경북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었던 대구에서는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바로 신명여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기독교계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기독교 여성 가운데 영천의 김정희의 경우처럼 혼자서 단독으로 3·1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지만, 一家 전체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들도 3·1운동에 참여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셋째, 양반가의 여성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김락과 남자현의 경우는 가족이 항일투쟁에 참여한 前史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넷째 대구출신의 기생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정철성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참여 주체별 가계와 3·1운동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여학교 단위의 3·1운동 참여자

일제강점초기 경북지역은 여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다. 유교지향적인 경북의 여러 곳에서는 여성들의 교육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나마 대구지역은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으로 한말·일제강점초기 여학교 설립이 이루어진 경북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북도내에서 대구지역은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심에 바로 信明女學校가 있었으며, 이를 주도한 여성으로 당시 학교 교사였던 임봉선이 손에 꼽힌다. 임봉선은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성경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교사 이재선과 함께 신명여학교 학생 50명을 이끌고, 3월 8일 대구 서문 밖 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林鳳善(1897. 10.10~1923. 2.10)은 1897년 칠곡군 인동면 진평동(현 구미시 진평동) 517번지에서 아버지 林孔瞻과 어머니 윤승순의 2남 1녀 가운데 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 林鐘夏와 아래로 동생 林舜夏가 있다. 임봉선의 집안은 대대로 예천임씨 세거지인 구제동에 세거하였으

며, 이름난 부호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버지 임공침은 새로운 시도에 주저함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일찍부터 과수원을 경영하였으며, 1899년에는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1899년 5월 대구에서 부임한 헨리 먼로 브루엔(Henry Munro Bruen, 한국명 傅海利) 선교사와 그의 조사 김문일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한 임공침은 1901년 마을 사람들과 구제동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신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1905년 브루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회 내에 초등과정의 인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1908년에 이르러 극명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sup>6)</sup> 임공침은 교장직을 맡아 학교를 이끌 만큼 교육에 적극적이었고, 교육에 있어 딸·아들의 구별이 없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임봉선은 여성이지만 일찍부터 신학문의 세례를 받고 성장하였다. 고향에서 초등과정을 마친 임봉선은 대구로 유학을 나와, 중등과정이었던 신명여학교를 졸업하였다.

신명여학교는 아버지 임공침을 전도한 브루엔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마르타 스코트 브루엔(1907~1912, Martha Scott Bruen, 한국명 傅馬太)이 설립한 학교였다. 브루엔 여사는 1902년 5월 10일 14명의 여학생으로 대구 선교지부에 신명여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즉 신명여학교의 출발은 신명여자소학교였으며, 5년 뒤인 1907년 3월 31일에 이르러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해 6월 1일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선교회로 경영권이 이관되었다. 1907년 10월 23일 대한제국 중학교령(1899.4.4)이 제정되자, 브루엔은 南山町 銅山(현 동산길 17)에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개교하였다. 일제강점 후인 1911년 4월 22일 사립학교 재등록 강요로 ‘사립 신명여자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으나, 신명여자중학교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12년부터 일제 당국에 등록된 ‘신명여학교’라

6) 권대웅, 「임봉선」, 『대구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21쪽; 이성우, 「滄旅 張鎭弘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5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88~92쪽. 인명학교에서 수학한 인물로 장지필·박원국·박덕여·박기형·임중하·정규원·김원경 등이 있었다. 특히 인동면 옥계동 출신이 장진홍과 진평동 출신의 이내성이 인명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내성은 진평동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장진홍은 1927년 10월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투척의거를 전개한 인물이다.

는 교명을 사용하였다. 1912년 5월 31일에 이르러 제1회 졸업생 3명(이금례·박연희·임성례)을 배출하였다.<sup>7)</sup> 이처럼 임봉선의 신명여학교 입학은 브루엔 선교사와의 인연이 크게 작용하였다. 브루엔과의 인연으로 고향마을에 설립된 극명학교에서 초등과정을 마치고, 대구 신명여학교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임봉선은 1918년 신명여학교(현 신명고등학교)를 제6회로 졸업한 뒤, 성경교사로 재직하였다.<sup>8)</sup> 학교 재직 당시인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임봉선은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8일 대구 서문 밖 시장[市場町]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李萬集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특히 계성학교,<sup>9)</sup> 대구고등보통학교, 신명여학교 등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았다.<sup>10)</sup> 신명여학교의 참여는 계성학교 졸업생으로 평양숭실학교에 다니던 김무생(金武生, 3월 7일 대구로 움)이 신명여학교 교사 이재인(李在寅)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재인은 계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여기에 신명여학교 졸업생으로 교직원이었던 임봉선, 그리고 졸업생 李善希(이명 李善愛)의 역할이 컸다.<sup>11)</sup>

7) 신명고등학교·신명여자중학교, 『신명백년사(1907~2007)』, 2008, 47~51쪽.

8) 「이만집 등 판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83, 348~349쪽. 이 때문에 붙잡혀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23년 세상을 떠났다.

9) 계성학교는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 J. E. Adms에 의해 약전 골목 구제일교회 자리에서 1906년 개교하였다. 1908년 아담스관을 개축하면서 현재의 위치인 대신동 동산으로 이전하였고, 1912년 6월 17일 사립 계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대구고등보통학교는 1916년 5월 16일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인 관립대구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당시에는 대구향교 내의 사립 협성학교 부속 건물에서 출발하였으나, 1917년 12월 16일 대봉동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고, 1918년에는 본관을 준공하였다. (권영배, 「대구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주도층」, 『조선사연구』6, 조선사연구회, 1997, 125~126쪽).

10) 「이만집 등 판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83, 348~349쪽.

11) 「이만집 등 판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83, 348~349쪽.



임봉선과 이선희(1896~1926)는 모두 신명여학교 6회 졸업생이다. 임봉선은 당시 학교 성경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이선희는 예수교 권사로 알려진 인물이다.<sup>12)</sup> 이들 두 사람과 더불어, 이날 신명여학교 전교생 50여 명이 모두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가운데 30여 명이 불잡혀 구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3·1 만세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졸업생 및 재학생<sup>13)</sup>

3·1 만세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 및 졸업생						
구 분	성명	성별	연령	직책	수형	비고
교 사	李在寅	남	32	교사	1년	전) 계성교사
교직원	林鳳善	여	23	성경교사	1년	6회 졸업생
“	李善愛 (李善希)	여	23	예수교권사	6개월	6회 졸업생

  

졸업 회수	3월 8일 대구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구류된 학생
7회(6명)	강점순 객춘학 김귀조 염향이 이원순 추동암(애경)
8회(11명)	강태덕 견갑련 김남출 김달희 김복조 김옥향 백일화 이봉선 이순이 최순선 최정슬 홍범순
9회(4명)	김일애 백갑덕 이영현 장희조
10회(8명)	강성희 김학진 서분이 손원연 송숙이 주금경 차영숙 천선희
11회(1명)	김남주

임봉선과 이선희 이외에도 3월 8일 대구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으로 李南淑(1903.6.17~미상)이 있다. 본적과 주소가 대구 명치정 1정목

12) 「판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13) 「판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신명고등학교·신명여자중학교, 『신명백년사(1907~2007)』, 2008, 84~85쪽; 이선희(이명 이선희)는 『신명백년사』에는 전도사로 봉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판결문에는 기독교 권사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중구 계산1동) 55번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성장기와 관련된 유일한 정보는 사립 해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정도이다.<sup>14)</sup> 졸업 후 집에 머무르던 이남숙은 대구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이남숙은 재판에 회부되어,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때 그의 나이 만 17세였다. 이 날 이남숙의 만세시위 참여가 어느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재판에 넘겨진 67명 가운데 해성학교 출신은 이남숙뿐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독교 인사들과의 연계나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과의 개별 접촉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 둘 뿐이다. 출옥 뒤 이남숙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는다.<sup>15)</sup>

한편 신명여학교 출신으로 충남 아산군 염치면(현재 아산시 염치읍)에서 永信學校 교사로 재직 중 3·1운동을 전개한 韓連順(1898.12.26~미상)이 있다.<sup>16)</sup> 한연순은 1898년 12월 26일 韓榮洙의 장녀로 태어났다.<sup>17)</sup> 본적은 경북 대구 남산정 541번지이다. 그의 성장 과정과 수학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동아일보』에서 신명여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다.<sup>18)</sup>

14) 「관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사립 해성학교는 지금의 효성초등학교의 전신이다. 해성학교는 1898년 10월 계산성당의 교육관인 해성재(海星齋)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처음 한문서당으로 출발하였으나, 1908년 4월에 이르러 사립 성립학교로 바뀌었으며, 성립학교는 1910년 11월부터 여자부를 두었다. 이어 1916년 9월 그 이름을 다시 해성학교로 바꾸었다. 이남숙은 해성학교 여자부에서 수학한 것으로 짐작된다. 「관결문」(대구지방법원, 1919. 4. 18)에는 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관결문」 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8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의 독립운동사』Ⅲ, 2013; 강윤정, 「한연순」, 『대구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41~43쪽.

16) 한연순 관련연구는 강윤정, 「한연순」, 『대구여성 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49~50쪽.

17) 「한연순제적부」

18) 『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자.

신명여학교 졸업 후 한연순은 충남 아산군의 영신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영신학교는 아산군에 있었던 기독교계 학교이지만,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연순은 영신학교 재직 중이던 1919년 3월 31일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펼쳤다. 아산군에서는 3월 31일 밤부터 군내 각 면에서 일제히 횃불 시위가 있었다. 탕정면·염치면·배방면·송악면 등 여러 면의 50여 곳에서 총 2천 5백여 명이 군민들이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한연순의 거주지였던 염치면 백암리 뒷산에서도 주민 20여 명이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한연순과 金福熙(1903~1987)이다.<sup>19)</sup> 당시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김복희는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와 자신의 출신학교 교사로 있던 한연순과 논의하여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sup>20)</sup> 두 사람은 이 일로 붙잡혀 5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한연순은 3월, 김복희는 2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sup>21)</sup>

한편 경주 내남면 덕천리 출신으로 기록된 楊泰元(1904~미상)은 1919년 3월 초 전남 광주에서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양태원은 학생들과 태극기를 제작하고, 3월 10일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sup>22)</sup>

이상에서 언급한 임봉선과 이선희, 한연순은 모두 신명여학교 출신으로 학교 교사나 교직원으로 관계하며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양태원은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재학 중 여학교 차원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남숙 또한 대구에서 신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학생 3·1운동 범주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6, 150쪽; 「판결문」, 공주지방법원, 1919년 5월 9일.

20) 김광신, 『우리 어머니-김복희 장로의 일생』, 1980; 고향에 내려가자 제가 나왔던 영신학교 선생으로 있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연순 선생을 만났습니다.

21) 「판결문」, 공주지방법원, 1919년 5월 9일.

2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2. 기독교 여성들의 3·1운동 참여

경북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가운데 기독교 여성들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한다. 위에서 언급한 신명여학교 출신들 역시 모두 기독교계 여성들이다. 이들 여성들은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여성이라면, 남편이나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계 여성들이 있다. 영덕의 신분금과 윤악이, 구미의 김금심과 이소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申分今(1886~미상)과 尹岳伊(1887~1962)는 1919년 3월 24일 영덕군 知品面 院前洞 시장에서 3·1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두 여성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두 사람이 만세시위에 나선 계기는 남편의 3·1운동 참여와 체포였다. 윤악이의 남편인 朱明宇(지품면 황장리)와 신분금의 남편 金太乙(지품면 원전리)은 모두 예수교북장로파 신도였다.<sup>23)</sup> 이들은 3월 19일 기독교인 10여 명과 함께 지품주재소 앞에 모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시위를 주도했던 이명우와 김태을은 곧 검거되었고, 군중들도 강제로 해산 당하고 말았다.<sup>24)</sup>

남편이 체포되자 윤악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같은 처지로 근심하던 신분금에게 24일 원전동 장날 “오늘 여기 시장에서 구한국독립운동”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동의한 두 사람은 시장으로 가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윤악이는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여자이지만 한국의 독립을 희망하며, 한국 만세를 부른다.”고 연설한 뒤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체포되어, 윤악이는 징역 8개월, 신분금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sup>25)</sup>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남편과

23) 「윤악이외 1인 판결문」, 1919년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24) 김희곤외, 『영덕의 독립운동사』, 영덕군, 2012. 그 뒤 주명우는 징역 2월, 김태을은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25) 「윤악이외 1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1919년 4월 16일; 영덕군은 경북도내에서 3·1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김학여(金學女)와 장분이(張粉伊)는 1919년 3월 19일 창수(蒼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창수의 만세운동에는 창수동·신리동·삼계동·방

아내 모두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구미 해평의 金今心(생물 미상)과 李小烈(1898~1968)도 1919년 4월 3일 경북 선산군(현재 구미시) 해평면 山陽 마을에서 예수교회 목사 崔載華가 이끄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sup>26)</sup> 최재화는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 밖 시장과 3월 10일 남문 밖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한 뒤, 그날 밤 고향 선산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최재화는 만세시위 준비에 나섰다. 우선 그는 3월 17일 밤 칠곡군 인동면에 사는 친구 朴鎭五를 만났다. 두 사람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하고 동지규합에 나섰다. 4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두 사람은 마을 주민 60~70명과 함께 해평주재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날 일본 군경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이를 피해 도망한 최재화와 박진오를 제외하고, 참여자 전원인 55명이 검거되었다.<sup>27)</sup> 이들 가운데 여성으로 확인되는 김금심과 이소열은 모두 최재화의 가족이다. 김금심은 최재화의 부인이며, 이소열은 제수(동생 최태권의 부인)이다. 붙잡힌 55명 가운데 24명이 태80도를 선고받았는데, 이소열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sup>28)</sup>

이와 같이 가족이 함께 혹은 뒤이어 만세시위에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 여성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한 여성도 있었다. 영천군 영천면 과전동의 金正希(1896~?)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정희는 1896년 11월 26일 경북 영천군 영천면 성내동에서 태어났

---

가동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올진 서면에서 참가한 인물도 있었다. 이날의 만세 운동에는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로는 김학여와 장분이란 확인된다.

26)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

27) 강운정, 「2017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임봉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권대웅,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최재화·이소열·임봉선」,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연집』,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9, 122~125쪽.

28) 이윤락, 『三一運動實錄』, 1969, 75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3·1운동사(하), 1976, 461~463쪽; 권대웅,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최재화·이소열·임봉선」,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연집』,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9, 125쪽.

다.<sup>29)</sup> 성장하여 같은 영천면내 과전동에 거주하는 崔福岩과 혼인하였다.<sup>30)</sup> 1919년 당시 영천 성내교회 신자이던 김정희는 4월 13일 단신으로 3·1운동을 펼쳤으며,<sup>31)</sup> 출옥 뒤에도 꾸준히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김정희는 일본의 정치 전황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농민 홍종현이 4월 12일 영천면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날 김정희는 손가락 끝을 잘라 흰색 명주에 ‘대한독립만세’라는 한글 혈서를 써서 깃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3일 오전 11시 과전동에서 창구동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고창하였다.<sup>32)</sup> 김정희는 영천경찰서 고등계경찰보로 근무하던 동생 김태진의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끝내 굴하지 않았다. 또 대구로 압송되는 도중에도 계속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결국 김정희는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sup>33)</sup>

### 3. 양반가 여성들의 3.1운동 참여

경북에서는 양반가의 여성들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락과 남자현이다. 金洛(1862.12.2-1929.2.12)은 남자현과 더불어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862년 음력 12월 2일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내앞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愚坡 金鎭麟(1825-1895, 의성김씨)이며, 어머니는 朴周(1824-1877, 함양박씨)이다. 김락은 이들 사이에서 4남 3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sup>34)</sup> 김락

29) 「신분장지문원지」.

30)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1919. 4. 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제3권, 364~365쪽; 李龍洛, 『三一運動實錄』(1969, 378~379쪽)에는 “일개 농가의 부인”으로 기록하였다.

31) 김병희 편역, 『경북교회사』, 코람데오, 2004, 130쪽.

32) 「김정희 판결문」, 1919. 4. 28, 대구지방법원.

3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경북독립운동사Ⅲ - 3·1운동』, 경상북도, 2012, 91~92쪽.

의 출생지인 내앞마을은 의성김씨 靑溪 金璣의 후손들이 대대로 세거한 반촌이며, 그 가운데서도 김락의 집안은 명망이 높았다.<sup>35)</sup>

이곳에서 성장한 김락은 만18세에 이르러 안동 도산면 토계리 하계마을의 李中業(1863-1921)과 혼인하였다. 시아버지는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외직으로 양산군수를 지냈던 響山 李晩燾(1842-1910)였다. 이만도는 1895년 宣城義陣을 꾸리고 의병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이어 1905년 을사늑약이 있자, 늑약 파기와 오적(五賊)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일월산에 은거하며 산나물로 목숨을 이어가던 그는 1910년 나라가 일제에게 병탄되자 단식으로 순절하였다.<sup>36)</sup>

남은 가족들도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맏아들 李棟欽은 1917년 무렵 광복회 단원으로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펼쳤다. 이듬해 1918년 그 활동이 드러나면서 이동흙은 체포되어 5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19년 남편 이중업도 유림들이 주도한 파리장서운동의 핵심에서 움직였다.<sup>37)</sup>

남편 이중업이 파리장서운동으로 서울·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할 때, 김락은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 예안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34)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5, 안동사학회, 2000, 147쪽.

35) 부친 김진린이 都事를 지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 집을 도사택으로 부른다. 도사택은 世稱 사람 천석·글 천석·살림 천석, ‘삼천석택’으로 불렸다. 그 만큼 경제력과 학문을 두루 갖춘 집안이라는 뜻이다. 집안에는 아버지 김진린의 가세를 입증할 만한 호구단자 네 점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김진린이 43세(김락 6세)되던 해의 호구단자에는 술거노비와 외거노비 3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노비들은 일직·선산·풍가·순흥에 거주하였다. 이로 보아 이 지역에도 상당수의 토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6) 조동걸, 「향산 이만도의 독립운동과 그의 유지」, 『민족 위해 살다간 안동의 근대인물』, 안동청년유도회, 2003 참조.

37) 김희곤, 「민족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민족 위해 살다간 안동의 근대인물』, 안동청년유도회, 2003 참조.

다. 김락의 3·1운동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3·1운동 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를 받아 失明하였고, 그 때문에 이후 11년 동안 고생하다가 1929년 2월에 사망했다”는 내용뿐이다.<sup>38)</sup> 58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김락과 더불어 양반가의 여성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으로 경북 영양 출신의 南慈賢(1873~1933)이 있다. 남자현은 1873년 아버지 南珽漢과 어머니 진성이씨(李元俊의 딸) 사이에서 1남 3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sup>40)</sup> 남자현은 성장하여 19세가 되던 1891년 무렵, 金永周(1871~1896, 이명 金象周·金炳周, 자는 珙八)와 혼인하였다.<sup>41)</sup> 그런데 1896년 의병전쟁에 나섰던 남편 金永周가 전사하자, ‘남편의 원수 일본’이라는 의식을 키우며, 만주로 망명해있던 친척 및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이어갔다. 1917년 아들을 만주로 보내 1차례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이어 1919년 2월 3·1운동 소식을 접한 남자현은 만주망명을 결행하였다. 그리고 만주망명 과정에서 잠시 서울에 머물며,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sup>42)</sup>

남자현의 아들 김성삼은 “1919년 2월 서울 남대문통에 살던 김씨 부인의 편지를 받고 서울로 간 남자현은 연희전문학교 근처의 한 교회에서 김씨 부인을 비롯한 교회신자들과 3·1독립만세에 참여했다.”고 회고

38) 조선총독부 경복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쪽. “안동의 양반 고 이중업의 처는 대정 18년(1919) 소요당시 수비대에 끌려가 취조받은 결과 실명했고, 이후 11년 동안 고생한 끝에 소화 4년(1929) 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밤낮 적개심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들 이동흙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39) 2년 뒤인 1921년 2차 독립청원운동을 준비하던 남편 이중업 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어 둘째 아들 이중흙도 1926년 독립운동 자금 모집활동을 펼치다 체포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다. 홀로 남아 고통스러운 만년을 보내던 그녀는 두 번의 자결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그 뒤 김락은 1929년 2월 6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40) 남씨대중회, 『남씨대동보』 4권, 1993; 「제적등본」

41) 『의성김씨대동보』 권4, 349쪽; 『영양남씨세보』 4권, 1993.

42) 강운정, 「여성독립운동가 南慈賢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4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13~18쪽.



하였다.<sup>43)</sup> 김씨 부인이라는 단서만으로는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교회와 연결된 인물임은 분명해 보인다. 즉 남자현은 남대문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이었던 李甲成이 경상도지역 만세시위조직 책임을 맡았는데, 그는 대구의 이만집 목사와 김태런 조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여 경북지역의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즉 남대문 교회는 경북지역 만세시위의 지휘 본부처럼 이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남자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즉 남자현은 전통적인 양반가의 여성이었지만, 3·1운동 참여는 기독교계 인맥과 관련을 가지고 전개된 특징이 있다.<sup>45)</sup>

#### 4. 기생 정칠성의 3·1운동 참여

경북의 대구 출신의 기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정칠성이 확인된다. 錦竹이라는 기생 이름을 가진 丁七星(1897~1958)은 대구에서 태어났다.<sup>46)</sup> 그의 부모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sup>47)</sup> 유년의 정보 또한 8세의 어린나이에 기생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정도이다. 보통은 12~13세가 되어야 기생이 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8)</sup> 정칠성은 어린나이

43) 『동아일보』, 1948년 3월 3일, 「남자현여사의 장남 회고담」. 기미독립선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부근 교회당에서 동지와 협의한 후 시내 각 교회신자를 규합하여,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뒤 3월 9일에 만주로 건너갔다.”고 하였다.

44) 이덕주, 「여류 무장 독립운동가; 남자현」,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기독교문사, 1990. 103쪽;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3, 291쪽.

45) 강윤정, 『한국근대의 여걸, 남자현』, 지식산업사, 1918, 74쪽.

46) 『조선연감』, 1947, 368쪽; 정칠성의 명확한 생년이 기록된 자료는 없다. 『조선연감』에는 정칠성의 생년을 1946년 49세, 1947년 50세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1897년으로 확정하였다. 선행연구에는 1897·1902·1905·1908년생 설이 있다.

47) 이씨 성을 가진 남성과의 사이에서 일찍이 아들 이동수(李東樹)를 낳았지만 결별하였고, 고려공청회 책임비서인 신철(辛鐵)과의 동거설이 있다.

48) 김중순, 「근대화의 擔持者 기생 I」, 『한국학논집』 4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181쪽.

에 스승을 따라 관청을 드나들며 창을 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技藝 또한 불만하여 주변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7년 순종이 대구로 순시를 왔을 때 여러 기생들과 함께 참여 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꼬마 기생으로 상당히 이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철성의 다음 행적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서울의 漢南券番이다.<sup>49)</sup> 기생 당시의 정철성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서울로 올라온 정철성은 대담한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세에 승마를 배우는 파격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개벽》에 실린 「경성의 화류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녀가 단발 미인으로 장안에 화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0)</sup> 정철성은 1927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였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17세에 男服을 하고 말 달릴 때’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정철성은 ‘말타는 기생’과 ‘단발미인’으로 장안에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長安을 울니든 名妓’ ‘雨後風蘭’ ‘歌舞잘하고 버들잎같이 기름한 아름다운 얼굴’ ‘3·1當時까지 傾國의 소리를 들었다.’<sup>51)</sup> 8살 꼬마기생이 경성의 이름있는 기생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어난 3·1 운동은 그가 민족문제를 담지하고 새로운 길을 지향하는 여성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 민족이 독립을 목 놓아 외쳤던 3·1운동에 정철성도 참여하였으며, 이는 정철성이 기생을 그만두고 동경 유학 후 여성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至今으로부터 10年前 卽 21歲 時 當時는 3·1運動 卽後 朝鮮 안은 수선수선하든 판이라 기쁜 뜻은 모르나 鐘路 네거리에 서서 바라보는 절문 가삼은 흥분에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를 따라 다닌 일도 있었다. 여러 가지 活動寫眞에서 본 것과 이때에 맞든 충동은 마침내 玄海를 건느게 되어 거기서 語學도 배호고 西洋 갈 準備로 英語도 배호고 타이푸라이다도 배웠으나 그러는 中 차차 社會에 눈 뜨게 되에 다시 朝鮮에 건너와 大邱에 女靑을 組織하고 京城에 女性同友會

49)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사』, 346~7쪽.

50) 『개벽』 48, 1924.6.1(김중순, 「근대화의 擔持者 기생 I」, 『한국학논집』 제4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181쪽에서 재인용).

51) 『삼천리』 제17호, 1931.07.01; 『삼천리』 제7권 제8호, 1935.09.01.

를 組織하며 全鮮靑年大會代表의 한 사람으로 活動하다가(후략)”<sup>52)</sup>

### III. 3·1운동 이후의 활동

3·1운동 직후 경북 여성들 가운데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활약한 여성들이 등장하였다. 3·1운동 직후 여성들은 애국부인회·부인독립회 등 비밀결사를 국내외에서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아 임정에 보내고, 임정 요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항일단체는 1919년 9월 정신여학교에서 김마리아를 회장으로 결성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이다. 이 단체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결사부와 적십자부를 두고, 대구를 비롯하여 부산·전주·진주·평양·원산 등 남북한 15개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여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전국적인 여성 독립운동단체였다.<sup>53)</sup>

여기에 대구에 거주하던 정신여학교 출신 兪仁卿(1896~1944, 본적 성주)과 신명여학교 출신의 이희경(李熙卿, 1894~1948, 이명 李今禮) 등이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유인경은 거창·밀양·통영지역을 통괄하는 대구지부장에 임명되어 양산·마산·울산·부산 통할도 위임받았다.<sup>54)</sup> 유인경은 조직 확대에 힘쓰는 한편 8월 군자금 100원을 본부에 교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sup>55)</sup>

이 밖에도 3·1운동은 경북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우선 남자현은 만주로 망명하여 이후 꾸준히 항일투쟁을 이어갔고, 한연

52) 편집자, 「著名人物 一代記(설문)」, 『삼천리』제9권 제1호, 1937.01.01, 40쪽.

53)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 한울아카데미, 2009, 162쪽.

54) 김성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구지부장 유인경」, 『대구여성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198쪽.

55) 경상북도 고등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5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7면·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9·430·432·447면;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순·김정희 등도 1920년대 꾸준히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정철성은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소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만주에서 투쟁한 남자현

남자현은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의 만주망명 경로는 백광 이운형을 비롯한 기독교 인사들과 이원일 등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던 경북인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만주 망명 뒤 남자현의 활동은 경북지역 인사들의 활동과 큰 틀에서 흐름을 같이한다. 망명 직후인 1919~1922년까지 남자현은 주로 서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활동 공간도 유하·액목·화전 등 서로군정서 중심부를 따라 바뀌었다.

1922년 8월 통의부가 조직되자 남자현은 이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과 함께 활약하였다. 채찬과 함께 군자금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통의부가 정의부로 계승되자 남자현은 정의부에서 활약하였다. 남자현의 정의부 활동은 교육활동, 독립운동가 후원, 무장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전개된 1927년의 ‘길림대 검거사건’ 구금자 구명 활동이나, 사이토총독 암살을 위한 국내 잠입, 일송 김동삼 구출 작전은 모두 정의부 차원의 활동으로 보여진다.<sup>56)</sup>

이처럼 남자현의 1920년대 활동은 서로군정서, 통의부, 정의부 등 경북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견주어 1932년 단지형서 전달 시도는 외교 활동 차원의 단독 의거로 보여진다. 이는 일제의 ‘만주국’ 수립이라는 절박한 시점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이어 남자현은 박의연·이규동 등 경북 인사들과 함께 1933년 무토 전권대사 처단 의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이 사전에 드러나 체포된 남자현은 수

---

56) 남자현,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33쪽.

감되었고, 수감 중 마지막으로 단식을 시도하였다.

3·1운동 이후 남자현이 보여준 이와 같은 투쟁은 정신사적으로는 유학적 대의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특히 끝까지 무장활동의 방략을 놓지 않았던 것은 남편과 친정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義兵의 捨生取義 정신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현은 전통적 의리관의 바탕 위에서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표출된 방법은 다를 뿐 단식을 통한 독립청원이나 마지막 단식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

만주라는 공간에서 여성으로서 무장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정의부에서 여성이 간부가 되어 ‘이름’이 기록된 예는 매우 드물다. 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남자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26년이다. 1926년 조선혁명자후원회 발기인 명단에서 겨우 그의 이름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런데 1927년 그 조직이 완성될 때 중앙위원의 직책을 맡으면서, 남자현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였다.<sup>58)</sup> 이는 정의부에서 활약했던 다른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현이 현장에서 활동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남자현은 당시 경북지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大義的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근대 여성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특히 정의부 내에는 손종도·오동진 등 기독교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여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남자현의 이러한 활동은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들 가운데 단연 두드러진다. 1920년대 만주에서 활약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을 내조하거나, 혹은 독립운동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자현의 행보는 독립운동을 넘어 한국근대사에서

57)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6일자.

58) 「朝鮮革命者後援會ノ發起ニ關スル件」(1927.2.14), 『일제경찰 신문조서』; 『동아일보』, 1927년 12월 10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실천력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

## 2. 1920년대 전반 한연순의 사회운동

3·1운동으로 3개월의 옥고를 치른 한연순은 1919년 8월 12일 출옥하였다.<sup>59)</sup> 출옥 뒤 그는 충남 논산군 강경의 萬東女學校 교사로 재직하였다. 만동여학교는 1909년 史愛理施(Alice J. Sharp)가 강경읍에 설립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였다. 한연순의 재직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920년 8월 이 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이 자료에서 확인된다.<sup>60)</sup>

이어 한연순은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동경여자대학교에 재학하며, 여자학흥회(혹은 여자흥학회) 임원으로 활약하였다.<sup>61)</sup> 여자학흥회는 1920년 1월 도쿄의 여자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여성단체이다. 1915년 만들어진 조선여자친목회의 후신으로, ‘여성 교육과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하였다. 1924년 보고에 따르면 회원 수는 30명 정도였고, 임원진으로는 회장 최진상, 총무 박명련, 간사 한연순·최영상·김량 등이 활약하였다. 1923년 봄에 이르러 유영준·황신덕·한소제 등이 탈퇴하는 바람에 활동이 부진했지만, 방학을 이용해 조선유학생학우회의 일원으로 꾸준히 순회강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탄압으로 1925년 이후 활동이 미미해졌다.

한연순의 여자학흥회 활동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강연회 활동이다. 그

---

59) 이하 한연순 부분은 강윤정, 「한연순」, 『대구여성 독립운동 인물사』(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49~50쪽)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60) 「청년수양회 강연」, 『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자. “1920년 8월 10일 목포 양동(陽洞)의 여자수양회(女子修養會)가 양동에배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원적 대구부 남산정 542번지 대구 동산(銅山) 신명여학교 출신, 현재 충남 논산군 강경 만동여학교 교수에 종사하는 여자 한연순씨가 이때 관광객 이곳에 들렀다가, 강사로 뽑혀 교육·실업·희생 세 가지 주제로 300여명 큰 박수 속에 열렬한 언변을 토하였으며(후략)”

61) 「在京朝鮮人狀況」 1924년 5월 31일자.

는 1921년 대구에서 여자흥학회가 주최한 강연회를 이끌었다. 1921년 8월 17일 동경 여자학흥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한연순은 사회자로 활약하였다. 이날의 강연회는 대구청년회와 기독교청년회, 그리고 해성 여자청년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박순천이 「실행의 금일」, 김선이 「영적 자각을 촉함」, 유영준이 「육체와 정신의 위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동경여자대학생 소속의 한연순이 사회를 맡았다.

1년 뒤인 1922년 8월 1일 한연순은 사립 신명여중학교 졸업생 동창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신명여학교는 총회를 소집하고 南城町 예배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교남기독교청년회와 동아일보 대구지국이 후원한 이날의 강연회에서 동창회 회장 李善愛의 사회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강의는 徐德完·秋愛卿·한연순이 맡았다. 이날 한연순은 700여명 청중 앞에서 「여자 해방」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sup>62)</sup>

그 뒤 한연순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때는 1925년 1월이다. 그는 1925년 1월 6일 대구 第四青年會가 주최하는 창립기념회에서 「婦人運動兩面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한연순은 玄哲·李達·李有德·尹又烈과 함께 대구 제4청년회 기관지 「제4청년」 발행 책임위원에 선정되었다. 제4청년회는 1924년 12월 16일 대구에서 조직된 청년운동단체이다. 단체의 구성원은 주로 대구의 신지식 청년이었으며, 청년층의 단결과 교육 훈련을 목표로 하였다. 한연순이 이 단체의 창립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관지 발간 책임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보아 회원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sup>63)</sup>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한연순은 1925년 3월 2일 결혼과 함께 운동선상에서 물러났다.

62) 「신명동창회강연회」, 『동아일보』 1922년 8월 7일자.

63) 「제4청년강연회」, 『동아일보』 1925년 1월 7일자

### 3. 정철성의 여성해방운동

3·1만세 뒤 기생을 그만둔 정철성은 1922년 일본 東京 영어강습소에서 수학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한때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였다. 10월에는 李春壽와 대구여자청년회 창립을 주도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sup>64)</sup> 이어 정철성은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이회는 1924년 5월 4일에 발기, 그해 5월 1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5월 23일에 발회식을 거행한 조선여성동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을 주장하며 서울에서 창립된 여성단체이다. 발기인은 김필애·김현제·박원희·정종명·정철성·홍순경·오수덕·고원섭·우봉순·이춘수·주세죽·지정신·김성지·허정숙이다. 창립총회에서 허정숙·박원희·주세죽을 집행위원으로 뽑았는데, 이들은 각각 임원근·김사국·박현영의 부인들이다.<sup>65)</sup>

그 뒤 정철성은 1925년 3월 경북 도 단위 사상단체 四合同盟 결성에 참여했다. 같은 달 동경으로 건너가 동경여자기예학교에 입학하고, 여성 사상단체 三月會에 참여했다.<sup>66)</sup> 삼월회는 1925년 3월 도쿄에 유학하고 있던 이현경·황신덕 등 여자 유학생들로 조직된 사회주의 여성단체로, 2개월 전에 조직된 一月會의 자매단체이다. 조선무산계급 및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조선 여성은 계급적 봉건적 인습적 압박의 철쇄에 얽매여 있으므로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여 인류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대중본위의 신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1925년 12월에 총회를 열어 운동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뒤 삼월회는 일본 내 조선인 노동자학살사건이 있자 조사회를 조직하기기도 하

64)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442쪽;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8쪽.

65)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0쪽.

66)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442쪽.



고, 조선무산계급단체에 자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sup>67)</sup>

정철성은 1926년 1월 삼월회 간부로서 『조선일보』에 「신여성이란 무엇」을 발표하여 “진정한 신여성은 구제도의 불합리한 환경을 부인하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가진 무산여성으로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열이 있는 새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sup>68)</sup> 이는 강렬한 계급의식을 가진 무산 여성으로 옛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여성만이 진정한 신여성이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착실하게 쌓고, 1926년 봄에 귀국하였다. 이 무렵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의 분파로 약화된 조선여성동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1927년 5월 근우회 결성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1929년 6월에는 신간회 북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7월에는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었다. 1930년 말 근우회 해소론이 대두하자 시기상조론이라고 비판하고 계몽운동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1931년 초 신간회해소론을 수용하여 5월 신간회 전체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해소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경성·평양·대구·통영에서 편물강습 등으로 생활하였다. 1938년 5월 장진에서 삼포금광배급소 주임을 지냈다.<sup>69)</sup>

#### IV. 맺음말

이상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구 경북여성들은 3·1운동에 참여하였다.

67) 전명혁, 「삼월회」, 『한국독립운동사 사전』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1쪽.

68) 『조선일보』 1926년 1월 4일자.

69)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442쪽.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8쪽.

도시지역인 대구에서는 여학교 단위의 3·1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운동의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다. 임봉선·이선희·이남숙·한연순·양태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남편이나 一家 전체가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들도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소열·신분금·윤악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양반가의 여성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김락과 남자현의 경우는 가족이 항일투쟁에 참여한 前史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구출신의 기생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정칠성 등이 있다. 이들이 주로 관계망 속에서 3·1운동을 전개했다면 영천의 김정희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여성도 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이러한 경험은 이후 여성들의 항일투쟁과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교적 대의정신이 강했던 남자현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항일투쟁·여성교육계몽운동·의열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한연순과 김정희 등도 1920년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으며, 정칠성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이처럼 3·1운동은 1920년대 이후 여성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경북 전역에 여성단체들이 출현하였다. 1920년대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개된 여성들의 민족운동에 대한 조명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강만길, 상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강윤정, 『한국 근대의 여걸 남자현』, 지식산업사, 2018.
- 강윤정, 『만주로 간 경북여성들』, 한국국학진흥원, 2018
- 강윤정, 『경북여성 정체성과 혼』,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4.
- 강윤정,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 강윤정, 「여성독립운동가 南慈賢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4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강윤정, 「3·1운동과 대구 경북여성」, 『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제 5회 영호남의 대화 : 3.1운동 100주년 기념(2)-』, 2019.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 2011.
- 김병희 편역, 『경북교회사』, 코람데오, 2004.
- 김진호, 「영덕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6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 김희곤, 「민족의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민족 위해 살다간 안동의 근대인물』, 안동청년유도회, 2003.
- 김희곤 외, 『영양의 독립운동사』, 영양문화원, 2006.
- 김희곤·박환·강윤정·심상훈, 『2013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자료』,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3.
- 김희곤·강윤정·권대웅·권영배·김성은·정일산·최세정, 『대구여성독립운동 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2019.
-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 환, 「[자료소개] 정의부 기관지 『戰友』의 간행과 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83, 2015.
- 박 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3.
- 신명고등학교·신명여자중학교, 『신명백년사(1907~2007)』, 2008.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사전』5, 2004.
- 이성우, 「滄旅 張鎮弘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

연구』5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조동걸, 『향산 이만도의 독립운동과 그의 유지』, 『민족 위해 살다간 안동의 근대 인물』, 안동청년유도회, 2003.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 한울아카데미, 2009.

Abstract

**Daegu-Gyeongbuk woman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subsequent activities.**

Kang, Yoon-jung

Daegu and Gyeongbuk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lthough there were not many. In Daegu, an urban area, teachers and students emerged as the leaders of the March 1st Movement for Women. And religiously, the participation of Christian women was remarkable. In particular,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Manse Movement, with all the husbands and families participating. In addition, Kim Rak and Nam Ja-hyeon,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s women of noble families, showed that their families had a prior history of participating in the anti-Japanese struggle. Jeong Chil-seong, a parasite from Daegu,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Seoul.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lso affected women's anti-Japanese struggles and women's movements. Nam Ja-hyeon,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efected to Manchuria and continued his anti-Japanese struggle in various ways. Han Yeon-soon and Kim Jung-hee also continued their activities, while Jeong Chil-sung accepted the idea of liberating socialist women and continued his

activities. As such,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has affected women's activities since the 1920s. In addition, women's groups appeared throughout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such,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has influenced women's movements since the 1920s.

**keywords :**

March 1st Movement, Daegu-Gyeongbuk Women, Shinmyeong Girls' School, The women's movement, socialist women's liberation